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7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2(1) 공감하며 소통하기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공감하며 소통하기」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  
나오요?

대화의 이론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 대화 상  
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어. 크  
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단다.

- **공손성의 원리**(5가지 격률): 각 격률의 정의를 외우는 건 기본이고, 대  
화 예시를 보고 어떤 격률을 지키거나 어겼는지 파악해야 해.
- **협력의 원리**(4가지 격률): 대화의 목적에 맞게 소통하는 원리야. 특히  
영똥한 소리를 하는 ‘관련성의 격률’ 위반이나, 거짓말을 하는 ‘질의 격  
률’ 위반 사례가 자주 나와.
- **담화 관습의 이해**: 우리말의 전통적인 말하기 방식(겸손, 돌려 말하기)  
과 세대 간/문화 간 차이를 묻는 문제야.



격률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특히 ‘관용의 격률’이랑 ‘겸양의 격률’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지.

**관용의 격률**은 ‘부담’과 ‘혜택’이 키워드야. “제가 잘 못 들었어요(내 탓/  
내 부담)”처럼 내 탓으로 돌려서 상대방의 잘못(부담)을 덮어주는 것이  
지. 그리고 **겸양의 격률**은 ‘칭찬’이 키워드야. “아직 실력이 부족합니다”  
처럼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이고 낮추어 말하는 것이야. 상대의 잘못을  
감싸주면 관용, 나에게 대한 칭찬을 사양하면 겸양! 이렇게 기억하렴.



아, ‘내 탓’이나 ‘겸손’이나의 차이군요! 그리고 할머니가 밥상을 엄청 많이  
차려놓고 “차린 게 없다”라고 하시는 지문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담화 관습' 중 '겸손하게 말하기'란다. 외국인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이 들으면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거짓말을 하지?"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는 발화의 의도(상대를 대접하려는 마음과 겸손)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말실수하는 대화가 나오고 고쳐 쓰기를 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단순히 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고쳐야 해.

- 예시: “너 때문에 늦었잖아!” (비난) → “네가 늦어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했어.” (비난은 즐기고 걱정하는 표현 → 찬동/요령의 격률 적용)
- 예시: “매점 가자.” (탄소리) → “그 주제도 좋지만, 일단 배가 고프니 밥 먹고 다시 이야기할까?” (대화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관련성의 격률 준수) 이렇게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체면 유지의 원리)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쪽으로 답을 골라야 한단다.



네! 격률의 정의를 확실히 외우고, '내 탓(관용)'인지 '겸손(겸양)'인지 잘 구별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7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2(1) 공감하며 소통하기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1 대화의 원리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대화의 원리’의 개념)을 ‘대화의 원리’라고 한다. 하루 동안 윤희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며 대화의 원리를 알아보자.

윤희: 내일 국어 시험인데 떨린다. 너 어때?

이현: 그래? 내일이 국어 시험이었나?

윤희: 너무 떨리는데…….

이현: (가)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라고.**(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말하기 임. “이현”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윤희: 애들아, 우리 모둠 발표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준석: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하면 어때?

지은: (나) **나는 모둠으로 하는 과제가 싫어.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말하기임. “지은”은 대화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말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공손성의 원리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공손성의 원리’의 개념. 대화 참여자 간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공손성의 원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상대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질문 형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있음. 예를 들어 ‘책 좀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를 들 수 있음.)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예를 들어 ‘제가 부족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였습니다.’를 들 수 있음.)
-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상대를 칭찬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함.)
- 겸양의 격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예를 들어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들 수 있음.)
- 동의의 격률: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협력의 원리’의 개념. 대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을 말한다.

-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정보의 양)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정보의 질. 예를 들어 거짓말은 질의 격률에 위배되는 행

위임.)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정보의 관련성.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관련성의 격률에 위배됨.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정보 제시 방법.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인 표현을 남발하면 태도의 격률에 위배됨.)

윤희: 준석아 오늘 진로 상담 잘했어?

준석: 응,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

윤희: 그래. 고민이 많겠구나. 그동안 정말 답답했겠다.

준석: 맞아.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재훈: (다)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책 좀 읽어라.**(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말하기임. "재훈"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충고를 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체면 유지의 원리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체면 유지의 원리’의 개념)을 말한다.

• 적극적 예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을 나타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현한다.

1.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가)~(다)의 말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대화의 원리에 비추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은”은 대화 주제와 무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고 있어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2. (가)~(다)의 말을 대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올바르게 고쳐 보자.**(대화의 원리 적용하기)

예)

(가) 너무 긴장하지 마.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좋아.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찾아볼까?

(다) 진로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 볼까?(“재훈”의 말을 (다)와 같이 고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이는 요령의 격률을 지키면서, 체면도 세워주는 표현이 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2 담화 관습의 이해와 성찰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담화 관습’의 개념)를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는 ‘돌려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신중하게 말하기’(담화 관습의 종류)와 같은 담화 관습이 있다.

◎ **돌려 말하는 관습**(‘돌려 말하는 관습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기 위한 완곡 어법과 관련이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움.)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한다.

◎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은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격률과 관련이 깊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한다.

예)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줄 때도 “번번치 않지만 받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한다.

◎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은 말실수를 줄이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말을 중요하게 여겨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예) 삼사일언(三思一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함을 이르는 말.

**자료 1** **옛이야기에 나타난 담화 관습**(고전 자료에 나타난 ‘돌려 말하기’에 대한 이해)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벼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술상을 내오며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고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량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벼이 손님이 자신을 푸대접하는 것을 알게 된 상황)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손님을 푸대접한 것을 비꼬기 위해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이 반영된 표현. “김 선생은 닭을 타고 가겠다는 비현실적인 말을 통해 주인의 인색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항간에 떠도는 설화를 패관들이 기록하다가 점차 창의성과 윤색을 가미하면서 형성된

산문적인 문학 형태인 패관 문학에 해당함. “주인이 김 선생의 말을 알아듣고 닭을 대접한 것은 돌려 말하기가 효과적으로 소통되었음을 보여 준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김 선생이 ‘닭 잡아서 안주 내오게.’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주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료 2** **매체 자료에 나타난 담화 관습**(드라마 속 대화에 제시된 ‘겸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이해)

해강은 세윤을 위로하려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 오시는 할머니.

할머니: (밥그릇을 건네주며) 아이고, **채린 게 없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반영된 표현. “할머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에 따라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세윤: 아, 아니요.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아요.

할머니:(웃으며) 뭐 소리여? 아침밥도 영감이란 이렇게 먹었는지? 저기 더 있게 모지라면 말혀.

세윤: **잘 먹겠습니다. 우아……. 대박!**(“세윤’은 할머니의 겸손한 표현에 대해 감탄사를 사용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에스비에스(SBS), 「라켓 소년단」, 2021년

**자료 3** **속담에 나타난 담화 관습**(속담 속에 제시된 ‘신중하게 말하기’에 대한 이해. ‘자료 3의 속담들은 모두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나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는 말)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시비가 길어질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이를 지키며 소통하면 좋은 점: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기의 담화 관습을 지키면서 대화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하게 되어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2(1) 공감하며 소통하기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1 대화의 원리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대화의 원리’의 개념)을 ‘대화의 원리’라고 한다. 하루 동안 윤희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며 대화의 원리를 알아보자.

윤희: 내일 국어 시험인데 떨린다. 너 어때?

이현: 그래? 내일이 국어 시험이었나?

윤희: 너무 떨리는데…….

이현: (가)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라고.**(\_\_\_\_\_의 원리 중 \_\_\_\_\_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말하기임. “이현’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윤희: 애들아, 우리 모둠 발표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준석: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하면 어때?

지은: (나) **나는 모둠으로 하는 과제가 싫어.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_\_\_\_\_의 원리 중 \_\_\_\_\_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말하기임. “지은’은 대화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말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공손성의 원리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_\_\_\_\_의 원리’의 개념. 대화 참여자 간 \_\_\_\_\_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_\_\_\_\_의 원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_\_\_\_\_에게 \_\_\_\_\_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_\_\_\_\_형식으로 \_\_\_\_\_하는 것이 있음. 예를 들어 ‘책 좀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를 들 수 있음.)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예를 들어 ‘제가 \_\_\_\_\_해서 미처 거기까지 \_\_\_\_\_을 못하였습니다.’를 들 수 있음.)
-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상대를 \_\_\_\_\_하여 \_\_\_\_\_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_\_\_\_\_함.)
- 겸양의 격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예를 들어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들 수 있음.)
- 동의의 격률: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_\_\_\_\_의 원리’의 개념. 대화 \_\_\_\_\_달성을 위한 것)을 말한다.

-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정보의 \_\_\_\_\_)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정보의 \_\_\_\_\_, 예를 들어 \_\_\_\_\_은 \_\_\_\_\_의 격률에 \_\_\_\_\_되

는 행위임.)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정보의 \_\_\_\_\_.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대화 \_\_\_\_와 관련 없 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_\_\_\_\_의 격률에 \_\_\_\_됨.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정보 \_\_\_\_ 방법. \_\_\_\_\_한 표현이 나 \_\_\_\_\_인 표현을 남발하면 \_\_\_\_\_의 격률에 위배됨.)

윤희: 준석아 오늘 진로 상담 잘했어?

준석: 응,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 진로 문 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

윤희: 그래. 고민이 많겠구나. 그동안 정말 답답했겠다.

준석: 맞아.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재훈: (다)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책 좀 읽어라.**(\_\_\_\_\_ 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말하기임. ‘재훈’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충고를 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 기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 체면 유지의 원리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_\_\_\_\_의 원리의 개념)을 말한다.

• 적극적 예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서로 \_\_\_\_\_하게 \_\_\_\_\_되어 있는 \_\_\_\_\_된 느낌)을 나타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 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현한다.

1.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가)~(다)의 말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대화의 \_\_\_\_\_에 비추어 어떤 부 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가)	상대를 _____하는 _____을 사용하고 있다.
(나)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상대의 _____을 _____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은’은 대화 주제와 무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고 있어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2. (가)~(다)의 말을 대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올바르게 고쳐 보자.**(\_\_\_\_\_의 \_\_\_\_\_ 적용하기)

예)

(가) 너무 긴장하지 마.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좋아.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찾아볼까?

(다) 진로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 볼까?(‘재훈’의 말을 (다)와 같이 고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이는 요령의 격률을 지키면서, 체면도 세워주는 표현이 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2 담화 관습의 이해와 성찰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_\_\_\_\_’의 개념)를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는 ‘**둘러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신중하게 말하기**’(\_\_\_\_\_의 종류)와 같은 담화 관습이 있다.

◎ **둘러 말하는 관습**(‘**둘러 말하는 관습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기 위한 완곡 어법과 관련이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_\_\_\_\_이 상하지 않도록 \_\_\_\_\_ 않고 \_\_\_\_\_.) 둘러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한다.

◎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은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격률과 관련이 깊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한다.

예)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줄 때도 “번번치 않지만 받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한다.

◎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은 말실수를 줄이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말을 중요하게 여겨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예) 삼사일언(三思一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함을 이르는 말.

**자료 1** **옛이야기에 나타난 담화 관습**(고전 자료에 나타난 ‘\_\_\_\_\_’에 대한 이해)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벼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술상을 내오며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고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벼이 \_\_\_\_\_이 자신을 \_\_\_\_\_하는 것을 알게 된 상황)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손님을 \_\_\_\_\_한 것을 비꼬기 위해 둘러 말하는 \_\_\_\_\_이 \_\_\_\_\_된 표현, “김 선생은 닭을 타고 가겠다는 비현실적인 말을 통해 주인의 인색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항간에 떠도는 \_\_\_\_\_를 \_\_\_\_\_들이 기록하다가 점차 \_\_\_\_\_과 \_\_\_\_\_을 가미하면서 형성된 산문적인 \_\_\_\_\_형태인 \_\_\_\_\_문학에 해당함. “주인이 김 선생의 말을 알아듣고 닭을 대접한 것은 둘러 말하기가 효과적으로 소통되었음을 보여 준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김 선생이 ‘닭 잡아서 안주 내오게.’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주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료 2** **매체 자료에 나타난 담화 관습**(드라마 속 \_\_\_\_\_에 제시된 ‘\_\_\_\_\_하게 말하기’에 대한 이해)

해강은 세운을 위로하려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 오시는 할머니.

할머니: (밥그릇을 건네주며) 아이고, **채린 게 없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겸손하게 말하는 \_\_\_\_ 관습이 반영된 표현, “할머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에 따라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세운: 아, 아니요.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아요.

할머니:(웃으며) 뭐 소리여? 아침밥도 영감이란 이렇게 먹었는지? 저기 더 있게 모지라면 말혀.

세운: **잘 먹겠습니다. 우아……. 대박!**(“세운’은 할머니의 겸손한 표현에 대해 감탄사를 사용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에스비에스(SBS), 「라켓 소년단」, 2021년

**자료 3** **속담에 나타난 담화 관습**(속담 속에 제시된 ‘ \_\_\_\_ 하게 말하기’에 대한 이해 ‘자료 3의 속담들은 모두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_\_\_\_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나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는 말)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시비가 길어질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 공동체의 \_\_\_\_ 관습을 이해하고 이를 지키며 소통하면 좋은 점: 대화 \_\_\_\_나 \_\_\_\_을 고려하여 \_\_\_\_하게 말하기, \_\_\_\_하게 말하기, \_\_\_\_말하기의 \_\_\_\_관습을 지키면서 \_\_\_\_하면 \_\_\_\_을 \_\_\_\_하고 \_\_\_\_하는 \_\_\_\_를 하게 되어 \_\_\_\_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무안 배포금지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7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2(1) 공감하며 소통하기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공손성의 원리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b>부담</b> 이 되는 표현은 <b>좋이</b> <b>고 이익</b> 이 되는 표현은 <b>들린다</b>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b>혜택</b> 을 주는 표현은 <b>좋이</b> <b>고 부담</b> 을 주는 표현은 <b>들린다</b> .
찬동의 격률	상대를 <b>비방</b> 하는 표현은 <b>좋이고 칭</b> <b>찬</b> 하는 표현은 <b>들린다</b> .
겸양의 격률	자신을 <b>칭찬</b> 하는 표현은 <b>좋이고 겸</b> <b>손</b> 하게 표현한다.
동의의 격률	자신과 상대의 <b>의견</b> 에서 <b>다른</b> 점은 <b>좋이고 공통점</b> 은 <b>들린다</b> .

2. 협력의 원리

양의 격률	대화의 <b>목적</b> 에 <b>필요한</b>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질의 격률	타당한 <b>근거</b> 를 들어 <b>진실한</b>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b>맥락</b> 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 다.
태도의 격률	<b>모호</b> 하거나 <b>중의적인</b> 표현을 피하고 <b>명료</b> 하게 표현한다.

3. 체면 유지의 원리

적극적 예의 전략	<b>친근</b> 하게 <b>유대감</b> 을 나타내며 상 대를 <b>존중</b>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b>강요</b> 하거나 <b>명령</b> 하지 않고 개인적 <b>권리</b> 를 <b>침해</b> 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표 현으로 <b>유감</b> 을 표현한다.

4. 담화 관습의 이해와 성찰

돌려 말하는 관습	<b>직설적</b> 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 정을 상하게 하거나 <b>불쾌</b> 한 느 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b>완곡</b> 하 게 <b>돌려</b> <b>부드럽게</b> 표현하는 것 을 말한다.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	대화할 때 상대에게 <b>예의</b> 를 갖 추면서 자신에 관한 <b>칭찬</b> 을 줄 이고 스스로를 <b>낮추어</b> 표현한 다.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b>말</b> 을 중요하게 여겨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은 <b>삼가고</b> <b>과묵</b> 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5. 「태평한화골계전」 제재 정리

갈래	설화, 패관 문학
성격	풍자적, 해학적
주제	친구의 <b>인색한</b> 대접에 대한 <b>재치</b> 있는 지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웃음</b>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li> <li>• <b>재치</b>와 <b>익살</b>이 넘치는 표현으로 <b>돌려</b>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남.</li> </ul>

8. 대화의 원리의 종류

공손성의 원리	서로 <b>공손</b> 하고 <b>예의</b>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하는 것
협력의 원리	대화의 <b>목적</b> 과 <b>방향</b> 에 맞게 <b>상호</b> <b>협력</b> 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
체면 유지의 원리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의 <b>체면</b> 을 고려하여 <b>예의</b> 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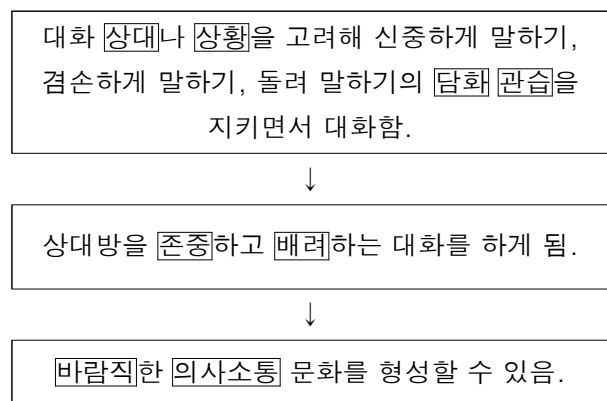
6. 「라켓 소년단」 제재 정리

갈래	드라마 대본
성격	도전적, 희망적
주제	소년 체전 도전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
장면 제재	세운을 <b>위로</b> 하고 <b>배려</b> 하는 할머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배드민턴</b>을 소재로 하여 청소년들의 선의 경쟁과 우정을 다룸.</li> <li>• <b>겸손하게</b>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남.</li> </ul>

7. 라디오 대담 핵심 정리

갈래	라디오 대담
참여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우리말 연구가
청자	라디오 방송 청취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언어생활</b>을 <b>성찰</b>하기 위해 우리말 연구가를 모시고 <b>잘못된</b> <b>담화</b> 관습을 <b>해결</b>하는 방법을 방송으로 알려 줌.</li> <li>• 잘못된 담화 관습의 <b>구체적인</b> 예를 제시함.</li> </ul>

9.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지키며 소통할 때의 장점



10. 대화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

남학생: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여학생: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게 더 좋을 거 같기도 하고…….



여학생이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을 지키지 않음.

㉡

남학생: 난 버스 탈 건데, 넌 어떻게 집에 갈 거야?

여학생: 난 횡단보도를 건너 다음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 쪽 걸어가다가 맞은편에 있는 책방에 들렀다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금 가면 지하철에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



여학생이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음.

㉢

남학생: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 짐 좀 들어 줘.

여학생: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남학생이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과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음.

TEST 1단계

1. 공손성의 원리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담이 되는 표현은 □이고 □익이 되는 표현은 □린다.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해□을 주는 표현은 □이고 부□을 주는 표현은 □린다.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하는 표현은 □이고 □찬하는 표현은 □린다.
겸양의 격률	자신을 칭□하는 표현은 □이고 □손하게 표현한다.
동의를 격률	자신과 상대의 □견에서 □른 점은 □이고 □통점은 □린다.

2. 협력의 원리

양의 격률	대화의 □적에 □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질의 격률	타당한 근□를 들어 □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맥□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태도의 격률	모□하거나 □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료하게 표현한다.

3. 체면 유지의 원리

적극적 예의 전략	□근하게 □대감을 나타내며 상대를 □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요하거나 □령하지 않고 개인적 □리를 □해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유□을 표현한다.

4. 담화 관습의 이해와 성찰

돌려 말하는 관습	직□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곡하게 □려 □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	대화할 때 상대에게 □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어 표현한다.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을 중요하게 여겨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은 □가고 □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5. 「태평한화골계전」 제재 정리

갈래	설화, 패관 문학
성격	풍자적, 해학적
주제	친구의 인□한 대접에 대한 □치 있는 지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li> <li>□치와 □살이 넘치는 표현으로 □려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남.</li> </ul>

6. 「라켓 소년단」 제재 정리

갈래	드라마 대본
성격	도전적, 희망적
주제	소년 체전 도전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
장면 제재	세운을 □로하고 □려하는 할머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민턴을 소재로 하여 청소년들의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다룸.</li> <li>□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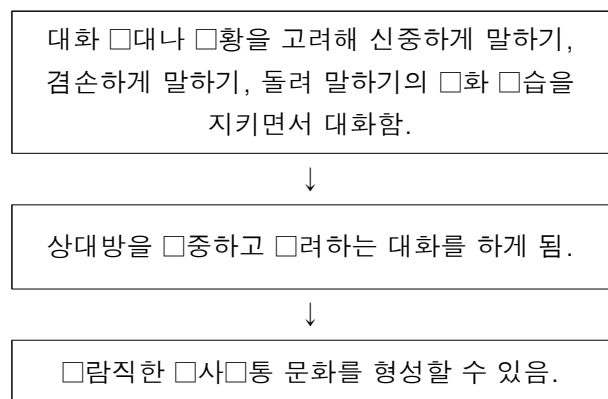
7. 라디오 대담 핵심 정리

갈래	라디오 대담
참여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우리말 연구가
청자	라디오 방송 청취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생활을 □찰하기 위해 우리말 연구가를 모시고 □못된 □화 관습을 □결하는 방법을 방송으로 알려 줌.</li> <li>잘못된 담화 관습의 구□적인 예를 제시함.</li> </ul>

8. 대화의 원리의 종류

공손성의 원리	서로 □손하고 □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하는 것
협력의 원리	대화의 □적과 □향에 맞게 □호 □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
체면 유지의 원리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의 □면을 고려하여 □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

9.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지키며 소통할 때의 장점



10. 대화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

남학생: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여학생: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게 더 좋을 거 같기도 하고…….



□학생이 □력의 원리 중 ‘□도의 격률’을 지키지 않음.

㉡

남학생: 난 버스 탈 건데, 넌 어떻게 집에 갈 거야?

여학생: 난 횡단보도를 건너 다음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 쪽 걸어가다가 맞은편에 있는 책방에 들렀다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금 가면 지하철에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



□학생이 □력의 원리 중 ‘□의 격률’을 지키지 않음.

㉢

남학생: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 짐 좀 들어 줘.

여학생: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학생이 □손성의 원리 중 □령의 격률과 □면 □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음.

O / X 문제

【1~20】 「공감하며 소통하기」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방법이다.

..... (O / X)

2. 찬동의 격률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늘리고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는 방법이다. .... (O / X)

3. 공손성의 원리는 서로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O / X)

4. 내일이 국어 시험이라 떨리는 친구에게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라고.”라고 말하는 것은 찬동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O / X)

5. 대화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에 해당한다. .... (O / X)

6.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책 좀 읽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말하기이다. .... (O / X)

7.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체면 유지의 원리 중 소극적 예의 전략에 해당한다. .... (O / X)

8.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은 돌려 말하는 관습에 해당한다.

..... (O / X)

9.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속담은 대화 관습 중 신중하게 말하기에 해당한다. .... (O / X)

1. O	2. X	3. X	4. O	5. X	6. O	7. X	8. O
9. O	10. X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7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2(1) 공감하며 소통하기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1 대화의 원리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을 '대화의 원리'라고 한다. 하루 동안 윤희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며 대화의 원리를 알아보자.

윤희: 내일 국어 시험인데 떨린다. 넌 어때?

이현: 그래? 내일이 국어 시험이었나?

윤희: 너무 떨리는데…….

이현: (가)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라고.

윤희: 애들아, 우리 모둠 발표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준석: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하면 어때?

지은: (나) 나는 모둠으로 하는 과제가 싫어.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

◎ 공손성의 원리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 겸양의 격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 동의의 격률: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윤희: 준석아 오늘 진로 상담 잘했어?

준석: 응,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

윤희: 그래. 고민이 많겠구나. 그동안 정말 답답했겠다.

준석: 맞아.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재훈: (다)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책 좀 읽어라.

◎ 체면 유지의 원리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 예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현한다.

1.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가)~(다)의 말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

(가)	
(나)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2. (가)~(다)의 말을 대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올바르게 고쳐 보자

## 2 담화 관습의 이해와 성찰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를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는 ‘돌려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신중하게 말하기’와 같은 담화 관습이 있다.

### ◎ 돌려 말하는 관습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한다.

### ◎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한다.

예)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줄 때도 “번번치 않지만 받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한다.

### ◎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말을 중요하게 여겨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예) 삼사일언(三思一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함을 이르는 말.

## 자료 1 옛이야기에 나타난 담화 관습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벼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술상을 내오며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고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

#### 자료 2 매체 자료에 나타난 담화 관습

해강은 세운을 위로하려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 오시는 할머니.

할머니: (밥그릇을 건네주며) 아이고, 채린 게 없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

세운: 아, 아니요.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아요.

할머니:(웃으며) 뭘 소리여? 아침밥도 영감이랑 이렇게 먹었는디? 저기 더 있음게 모지라면 말혀.

세운: 잘 먹겠습니다. 우아……. 대박!

- 에스비에스(SBS), 「라켓 소년단」, 2021년

#### 자료 3 속담에 나타난 담화 관습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핵심 정리

목단배포음시



지문

(가)~(다)에서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를 찾고, 이를 올바르게 고쳐 보자.



(가)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게 더 좋을 거 같기도 하고…….

(나)

	난 버스 탈 건데, 넌 어떻게 집에 갈 거야?
	난 횡단보도를 건너 다음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 쪽 걸어가다가 맞은편에 있는 책방에 들렀다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금 가면 지하철에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

(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 짐 좀 들어 줘.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	올바른 표현
(가)		
(나)		
(다)		

다음 라디오 대담을 듣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 담화의 관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진행자:** ‘옛말 그른 데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로부터 전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 명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말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전통이 녹아 있어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옛말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생활을 성찰하기 위해 우리말 연구가 정셋별 씨를 모셨습니다.

**우리말 연구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늘날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은 소중한 언어 유산이지요. 하지만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나 ‘꿀 먹은 병어리’처럼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들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을 비판적인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자:** 네.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외에도 차별적인 표현을 새롭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 연구가:**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이룰 때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의 ‘학부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방문과 같은 바깥일은 아버지나 형이 챙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말 연구가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담화 관습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